

“서해 풍랑주의보 기준 바꿔달라”

선박 운항금지 주민 불편·특산물 생산 제약 신안군, 광주기상청에 발효기준 완화 건의

매년 신안군 비금·도초도 주민들은 지역 특산물인 ‘섬초’ 출하시 가슴 앓이를 한다. 잦은 기상특보 발효로 인해 선박운항이 중지되며 ‘섬초’를 제때 서울 가락동농산물 시장 등지로 보내지 못해 신선도와 상품성이 떨어져 제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안군 주민들이 잦은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른 여객선 운항중단 등 불편을 호소하며 주의보 기준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안군은 최근 광주 지방기상청에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발효기준을 완화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신안군은 “신안 관내 72개 도서가 온 지역 특산물인 ‘섬초’ 출하시 가슴 앓이를 한다. 잦은 기상특보 발효로 인해 선박운항이 중지되며 ‘섬초’를 제때 서울 가락동농산물 시장 등지로 보내지 못해 신선도와 상품성이 떨어져 제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1971년 법개정 당시 여객선 평균 t 수는 175이지만, 올해 현재 평균 t 수는 406t으로 2.3배 대형화돼 여객 안전성이 높아졌다.

특히 군은 기상 관측지점이 비금면 원평리 해상 10km 인근에 위치해 관내 주요 해상항로가 포함된 서해 남

부앞바다 기상계측 자료가 아닌 서해 남부면바다 자료로 판단돼 실질적인 기상계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특보(주의보) 발령기준은 ▲해상풍속 초속 14m 이상 3시간 이상 ▲유외파고 3m 초과 예상시로 규정돼 지난 1971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군은 이 규정을 ▲해상에서 풍속이 초속 16m 이상 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외파고가 3m 이상 예상될때 해경과 해운항만청의 의견을 들어 여객선 통제 여부가 결정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의 기상특보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2011년 2년 평균 서해 남부 앞바다는 풍랑주의보가 34.6일간 35.5차례, 서해 남부 면바다는 31.1일간 43차례 발효했다. 시기는

주로 1~3월과 11~12월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칠발도 관측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발효된 풍랑주의보 39회 가운데 기준(풍속 초속 14m 이상)에 미달되는 횟수가 12회로 31%를 차지했으며, 유외파고(3m 이상)기준에도 13회(34%)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 관계자는 “비금·도초, 자은·안좌도 등 ‘평수구역’은 여객선이 대형화 되고 현대화됐기 때문에 풍랑주의보 기준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지방기상청은 13일 신안군과 목포항만청, 목포해경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풍랑주의보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 새얼굴

“군민 이익 대변하는 의회 만들겠다”

박희재 해남군의회 의장



“의회 본연의 자세로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겠습니다.” 최근 해남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박희재(61·통합민주당) 의원은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군정에 여과없이 반영하고, 해남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사고와 발전전략

으로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 계곡면 출신인 박의장은 5대 전·후반기 운영위원장, 6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섭기자 dia@

목포시 대양동 하수도 정비

84억 들여 10월 착공 2014년 완공

목포시가 사업비 84억원을 들여 도심 취약지역인 대양동 하수도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

시는 대양동 공동주택과 농촌 취락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등을 우·오수관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공사를 오는 10월 착공해 오는 2014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목포 IC부터 산정동공단지 사거리까지 5.6km의 오수관을 매설하고, 가압 펌프장 2개 시설을 가동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오수는 북

향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되고, 우수는 농경지 배수로를 통해 대양 앞바다로 흘러가게 돼 수질 보전과 함께 주민들의 공중위생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현재 조성중인 대양 일반산업단지지는 물론 대양동 도축장 폐수처리해 해결될 전망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2단계 국비 요청 사업으로 182억 원을 투자해 대양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피부질환 개선·미용 탁월 화장품 제조기술 민간 이전

원자력, 에코드림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는 최근 화장품 제조기술을 민간 기업체에 이전했다.

첨단 방사선연구소는 피부질환 개선 및 미용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메이신’(maysin)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 기술을 ㈜에코드림(대표 박용철)에 이전하는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정액 기술료 2억1500만원에 10년간 매출액의 4%를 경상 기술료로 지급받는 조건이다.

이전된 기술은 첨단방사선 연구소 생명공학연구부 정병엽 박사팀이 다년간 난지형 잔디 일종인 ‘센티페드

그라스’를 이용해 개발한 것으로, 피부질환 개선효과가 뛰어난 화장품과 마스크 팩·아토피 관련 제품 등 활용 범위가 넓다.

(주)에코드림은 정병엽 박사팀 연구소내 실용화연구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메이신’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화장품 5종 세트·마스크팩·아토피 등을 제조·판매할 예정이다.

정병엽 박사는 “앞으로 ‘메이신’을 화장품 이외에도 동물사료와 질병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체·대학·연구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초·중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오른다

전북도, 하반기 전학교 대상 시범사업

올 하반기부터 전북 도내 초·중학교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오른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9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도내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초·중학교는 2학기부터 학교급식에 친환경 인증 농산물(유기농·무농약·저농약)을 사용할 경우 구입

액의 4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범위는 1인·1식 기준 초등학교 100원, 중학교 130원 한도이며, 소요예산 20억원은 도교육청(10억원)과 전북도(5억원), 시·군(5억)이 함께 부담한다.

대상 품목은 감자·양파·상추 등 주요 식재료와 시·군 주력 품종을 포함한 15종 내외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시 상대 영업제한 취소 가처분 신청

6개 대형마트

롯데쇼핑 등 6개 대형 유통업체는 전주시의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 지방법원에 냈다.

대형마트들은 소장에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유통산업 발전법은 지자체장에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전주시 조례는 범위의 최고한도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도에 작품 전시회

이화주 남원시장과 시민 도예대학 수료생들이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시는 남원 도예문화의 발전과 도예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도예대학을 개설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레미콘 업계 파산 위기

원자재값 폭등·덤핑 경쟁으로 경영난 심각

건설경기 침체도 원인

남원지역 6개 레미콘 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폭등, 타 지역 덤핑공세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남원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뿐 아니라 골재와 혼합제 등 시멘트의 나머지 원료 값이 함께 올랐는데 건설업체들이 레미콘 가격을 올려주지 않아 곤혹스러운 처지다.

결국 가격을 내려 덤핑업체와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지난 4월 이후 시멘트와 골재, 유류 등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5%까지 폭등한 상태다.

실제로 시멘트는 1당 전년대비 1만

7500원가량이 인상됐다. 이런 현상은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부실 레미콘 납품이나 문물 담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급단가에서 10%가량을 수익으로 올렸던 지역 레미콘 업체는 물상을 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남원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2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봉급을 주기 위해서 한 달에 8000 루베(m)를 팔아야 하는데 지역현실은 그것마저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타지역 업체까지 들어와 가격을 덤핑해 지역 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더욱이 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근 곡성지역 업체에서 덤핑

공세를 일삼고 있어 남원 레미콘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곡성 업체는 1루베당 5000원, 한 차당 3만원 가량 싸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레미콘 업계에서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 대책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김 모씨는 “지역에서 몇천원 때문에 외지 업체를 이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며 “덤핑 공세에 맞설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자”

함평 나산중 ‘친구의 날’ 행사 호응

함평 나산중학교(교장 서인규)는 지난 9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친구를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친구의 날’ 행사를 가져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친구야! 함께 웃자! 함께 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친구 안아주기·편지쓰기·칭찬 및 자랑 발표하기·노래부르기·친구사랑 10계명 낭독·체육활동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체력한 교무부장은 “친구끼리 서로 믿고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게 학교폭력도 자연

스럽게 없어질 것”이라며 “다른 기념일은 많지만 정작 친구들과 마음을 주고 받은 날이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 ‘친구의 날’ 행사를 통해 의미있고 추억이 되어가는 만남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인규 교장은 “학교에서 다양한 친구사랑 실천을 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친구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건전한 친구사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중 집중호우 양쯔강 저염분수 서해 유입

어장 환경 변화... 수산물 피해 우려

중국 남부의 집중 호우로 쓰촨성의 수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등 중국 양쯔강 유출수 영향으로 저염분수(低鹽分水)가 서남해안 해역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어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양쯔강 유출수(저염분수)는 범람 이후, 30~45일이 지나면 제주도의 서쪽 및 북쪽 해역으로 이동해와 피해를 주는 저염분·고수온의 물 덩어리로 어장 환경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지난달부터 계속되는 집중 호우로 50개 이상의 하천이 홍수 경계수위를 넘나들고 있으며, 앞으로 도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 수산과학원은 이에 따라 저염분수 유입에 의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염분농도 28 psu (practical salinity unit) 이하 저염분수가 제주도 연안 10마일까지 근접할 경우 단계별 경고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 예방에 대비하고 있다. 서남해안 해역의 평상 시 염분은 33~34 psu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형선망 및 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조업하는 제주도 등 서남해안 인근 해역에 고수온을 동반한 저염분수가 대량으로 유입·확산하면 고등어·전갱이·갈치, 멸치 등 어류의 회유 경로와

서식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전복·소라 등과 같은 패류는 이동이 어려워 오래 노출되면 삼투압 조절 능력의 저하로 죽게 되어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 수산연구센터 박상은 박사는 “저염분수의 확산 속도나 진로는 풍향과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쓰촨성(三峽) = 양쯔강 중상류인 중국 후베이성 이창의 세 협곡을 잇는 세계 최대의 댐. 높이 185m, 길이 2309m, 너비 135m, 최대 저수량 390억 t, 최고 수위는 175m이다.

단신

전주시, 여름방학 빙상경기장 야간개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27~8월 25일 금·토요일(오후 6~9시) 빙상 경기장을 야간 개장한다.

무료강습은 선착순 모집으로 1개반 20명씩 4개반을 운영한다. 야간 개장기간 중 오후 7시에는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

다혜·강윤미 선수와 전북도 빙상팀 대표선수들이 직접 시민들을 감응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연인들을 위한 얼음위프 로포즈 이벤트도 제공한다. 문의 (063-239-2578)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김승범 정읍시의회 축하화분 기탁

김승범 정읍시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은 지역내 각계 각층으로부터 받은 당선 축하화분 30여 개를 ‘아름다운 가게 정읍점’에 불우이웃 돕기 물품으로 기탁했다.

김 의장은 정읍시의회 및 지역 발전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차원

에서 보내준 축하 화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소외계층 돕기 물품으로 기증했다.

김승범 의장은 “큰 물품은 아니지만 화분판매 수익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이백면 ‘수해 희생자 추모제’

남원시 이백면과 이백면 번영회는 지난 10일 효기리 위령탑에서 51년 전 발생한 수해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제7회 수해 위령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백면은 1961년 7월 18만 규모의 효기저수지 제방이 붕괴되며 사망자 110명이 발생하고 이재민 1366

명과 가옥과 손 190여채의 피해를 입었다. 임영란 이백면장은 “당시의 상황을 타산지식으로 여김으로써 수시로 저수지 상태를 살피고, 위험 시설물의 여부를 점검해 여름철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순창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의 날’

순창군은 대기오염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9월 말까지 읍·면별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반은 친환경적 운전방법에 대

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서비스는 순창읍 11일, 인계 18일, 동계 25일이다. 적성은 8월 1일, 유동 8일, 풍산 22일, 금과 29일이며, 북흥·쌍치·구림은 9월에 이뤄진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